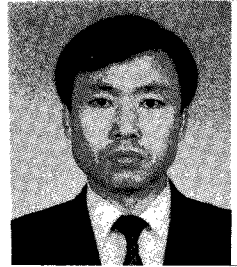


# '93년 양계경기전망



강재명  
본회 총무부장

**닭** 의해 계유년은 닭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양계인에게는 의미있는 한해가 아닌듯 싶다. 닭은 원래 신통력을 지닌 상서롭고 길조를 알리는 동물로 금년 한해 모든 양계인들에게 닭의 의미와 같은 행운이 깃들었으면 한다. 매년 겪는 양계산물의 호·불황을 완벽하게 막기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하나 우리의 현실은 힘 닿는 데 까지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금년도 양계산물의 가격전망은 수입개방의 물결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생산자의 불안심리가 가중되는 등 역시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하에서 좀더 근사치에 가깝게 접근하는 것은 생산자의 부담이라고 느껴지며 그렇게 하기위해 이용 가능한 사료의 활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자료를 바탕으로 금년도 한해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을 살

펴보고자 한다.

## 1. '92년을 돌아보며

계란이나 육계할것 없이 가격등락은 필연적이면서 어쩌면 가격에 의한 자연적인 생산조절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작년은 예년의 주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한해가 아니었나 싶다.

특히 육계경기의 기본적인 주기가 산물시세가 올라가면 곧바로 육용병아리 값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후 점차적으로 생산량 증가로 인한 산물시세 하락과 더불어 병아리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작년도는 의외의 상황이 나타났다. 육계값이 생산비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병아리가격은 200원내

외의 시세에서 꾸준히 지속해주는 특이한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육계농가의 에너지를 완전 소멸시키고 말았다.

또한 가격의 변동이 어느해 보다 심한 한 해였다. 난가는 연중 61회 정도로 변동되는 등 1주일에 한번이상 가격이 바뀌었고 육계가격은 120여회 움직이면서 3~4일 주기로 오르내리는 불안정한 가격이 연중 지속됐다. 이런 상황하에서도 계란가격은 생산량에서 안정세를 보인 덕분에 연중 특란기준 10개당 가격이 622원으로 생산비를 웃도는 시세가 형성된 반면 6월에는 48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육계가격은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다'는 속담이 실감나 듯이 kg당 생산비가 1,000원대로 지난해 최하시세가 380원, 최고시세가 1,450원으로 시세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연중평균가격이 886원으로 생산비에서 110원 정도 낮은시세이나 실제 체감가격은 200원 이상 손실을 본 한해도 거의 대부분 육계농가가 도산 일보직전까지 가는 어려운 한해로 이러한 후유증이 '93년도에도 지속되면서 입추열기가 쉽게 살아나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부화경기는 난가·육계가격에 따라 산란 병아리값은 연중 600원을 상회하는 호황세를 누린 반면 육용병아리값은 연중 생산비를 웃돈 시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용종계입식은 경기와 상관없이 입식되었음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 2. 사육동향

### 가. 산란계

산란종계 입식으로부터 계란생산까지의 기간이 대략 1년이후로 잡아야 한다. '92년 종계입식에 따라 '93년 난가에 많은 영향을 주게된다. '92년 산란종계(P.S) 입식수수는 657천수로 '90년 대비 6.7%, '91년 대비 10.5% 각각 증가했다. 이는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폭이 큰것으로 여겨진다. 상반기까지는 378천수로 년중 입식수수의 57.5%를 차지하고 전년도 동기간 대비 33.7% 증가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입식되었음을 알 수 있고 후반기는 297천수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또한 '91년 12월 '92년 1, 4, 5, 7월은 월 7만수에서 10만수 가까운 수수가 입추되어 '92년 연말내자 '93년 상반기까지 실용병아리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월과 7월은 비입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249%, 239% 각각 증가한 점으로 미뤄 '93년 봄병아리 생산증가가 예상되고 계란생산은 후반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수치는 실용계 생산잠재력에서도 잘나타나 '93년 상반기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전년 동기

표 1 산란종계 입식현황 (단위 : 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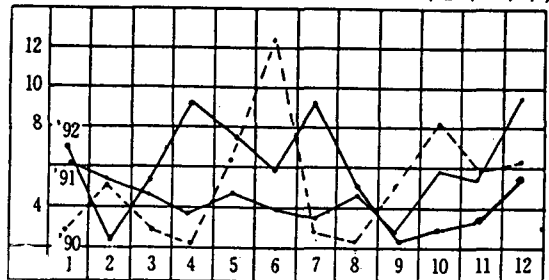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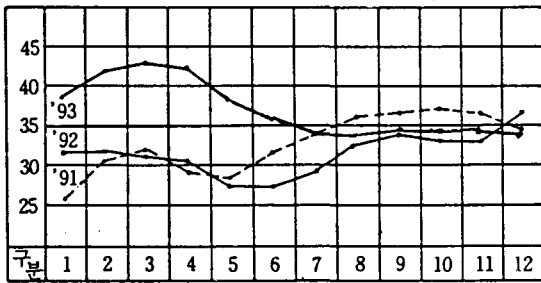


표 2. 산란실용계 생산잠재력

(단위: 천수)



간동안 매월 100만수 이상 증가하고 있어 인위적인 감축없이 병아리값 또한 낮은 시세가 불가피하게 보인다. 또한 백색계가 전무한 상태로 갈색계 일색으로 바뀌어 '93년 하반기 이후는 갈색란 중심으로 유통되고 이러한 변화도 난가에 영향을 미칠것 같다.

산란계 병아리가격은 '92년 연중 평균시세가 600원을 웃돌았고 9월까지의 700원을 상회했다. 이 시세는 예년에 비해 200원 정도 높은 시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는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높지않아 실용계 생산이 대체로 안정된 편이다. 전년도 병아리 생산수수를 측정해보면 초생추 사료량이 '91년대비 16%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갈색계 일색의 입추로 인하여 실증가는 10%를 밑도는 것으로 예상되며 갈색계에 생산성으로 보아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 나. 육계

최근 3년간 육용종계 입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92년도 육용종계(P.S) 입식수수가 4,076천수로 '91년대비 9.0% '90년대비 15.5% 증가했다. 상반기에는 2,283

표 3. 산란계 병아리가격

(단위: 수당/원)



천수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23%의 큰폭 증가를 보인 반면 하반기는 1,792천수로 5.0% 감소했다. 특히 6월까지 종계입식과열 현상까지 나타나 종계수입이 511천수로 전년도 연간수입량의 24.6%가 증가했으며 7월이후는 단 1수도 수입하지 않은 이변을 보였다. 역시 병아리값의 영향에 따라 종계를 입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난해 상반기의 과잉입식 종계의 대부분이 수익을 보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해 육계사료 생산량을 보면 전기는 전년수준과 거의 동일하였으며 후기사료는 6.2% 감소하여 전체사료량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닭고기

표 4. 육용종계 입식현황

(단위: 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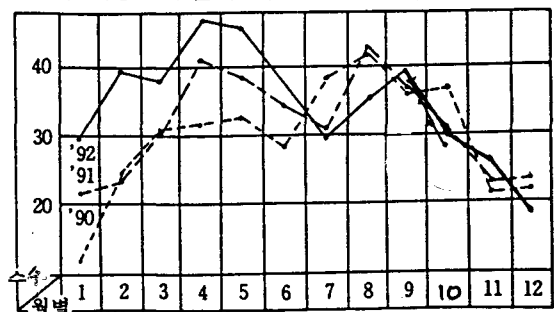


표 5. 육계사료 생산실적 (단위: 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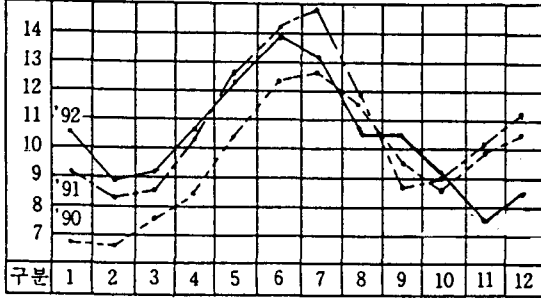


표 6. 육용계생산잠재력 (단위: 백만수)



소비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 육계가격과 사료생산량의 상관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이같은 종계입식 측면에서 본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어느해보다 높은편이나 9, 10월 병아리값의 폭락으로 부화경기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생산잠재력에 많은 변수로 나타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1월이후 매월 600만수에서 200만수 정도 생산수수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병아리값의 상승 즉시 병아리생산이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불황의 후유증으로 종계생산성 저하 조짐이 재연되고 있어 잠재력과 육계가격의 움직임은 이번이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향후 육계경기 변화에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하겠다.

### 3. 전망

'93년부터 미질단 냉장닭고기와 난황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면서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조짐도 일어나고 있어 양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듯 하다. 특히 지난해 육계불황으로 인한 육계농가의 사육기반이 무너지고 산란계 병아리 입식수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등 금년도 계란·닭고기 생산량을 예측하기가 무척 어려운 한해로 보인다.

또한 3D현상으로 인한 농장근무를 기피함에 따라 인건비상승, 사료비인상, 물가상승으로 생산비가 매년 증가하고 수입은 점진적으로 개방되는 추세에 비춰 양계업계의 진로까지 걱정된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냉철하게 적정생산이 급선무로서 내실있는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 가. 난가

'90년이후 가격등락은 있었으나 연평균 시세가 생산비를 상회하였고, 사상최고치를 수립하는 등 호황이 장기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호황의 근본원인이 '88, '89년 난가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전업농가가 늘어나고 병아리 생산수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상당한 기반이 무너져 근본적인 계란생산 감소로 인한 가격의 호황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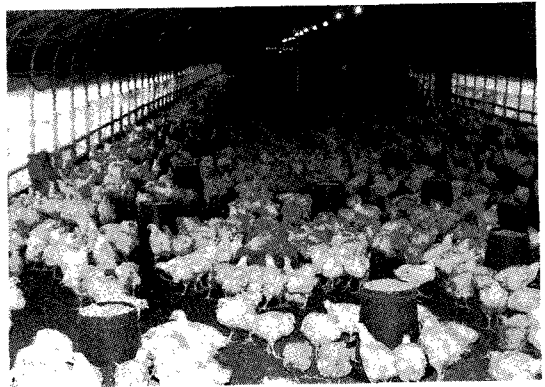
최근 3년간의 난가안정으로 서서히 사육수수 증가조짐을 보이고 있어 불황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듯 하다. 또한 타축종에 비해 수입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 해서 신규

업자가 나타나고 시설현대화로 인한 사육수수가 서서히 증가할 추세다. 반면 계란소비는 1인당 200개에 육박하고 있어 쉽사리 소비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편이다. '93년의 계란값은 전반적으로 계란생산량의 증가로 인하여 지난해에 비해 개당 5~10원정도 낮은 시세가 형성되면서 비수기인 여름철 난가가 더욱 어렵게 전망된다. 대체적으로 계란생산증가가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감소를 위한 방안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 시기별로는 2, 3, 6, 7, 8, 10, 11월이 어려운 시기로 보여지며 나머지 기간도 큰 기대는 되지 않는다. 어찌면 '93년은 불황의 조기조짐도 보여져 근본적인 입추조절 내지 노계도태가 활발히 이어져야 하겠으며 환우의 방법으로 생산조절을 하려고 해서는 불황의 장기화만 초래케될 것이다.

#### 나. 육계

작년도 육계업계의 두드러진 현상은 불황에 대처하는 육계인 자세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 손해를 본 부분을 일시에 만회하려고 하는 심리가 나타나면서 연속'입추가 계속되고 생산량은 줄지않고 육계값의 폭락은 지속됐다. 이런 과정에서 2~3차례 불황의 연속으로 마지막에는 육계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급기야는 육계를 더이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고 말았다.

금년도는 전반적으로 입추열기의 저조로 병아리값이 육계값에 비해 낮은 현상이 지속되면서 다소 육계가격은 안정될 조짐이



높은 편이다. 특히, 앞서도 언급했 듯이 지난해 과잉입식된 종계 대부분이 연속불황으로 인하여기본생산성이 상실되어 병아리생산에 많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동절기 생산성저하가 지속됨에 따라 4월까지 육계가격은 안정권을 유지하겠으나 이후 병아리값의 안정으로 서서히 병아리 생산이 증가하고 설상가상으로 복병아리 생산과 주기를 같이 하면서 5~6월 육계값은 생산과잉이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닭값은 지난해 복대비 종계입식이 예년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상승세로 전망된다.

후반기에는 다소 등락이 나타나면서 가격에 의한 자율생산조절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93년도 육계가격은 전반적으로 전년도 보다는 안정된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병아리값은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입추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양지**

